



괴짜 탐정의 두 번째 사건 노트

1. 괴짜 탐정 V.S. 환영사

하야미네 가오루 글 | 정진희 그림 | 권남희 옮김
332쪽 | 반양장 | 변형판 | 8,500원
ISBN 978-89-491-2428-5 74830 ISBN 978-89-491-9500-1(세트)
초등학교 3학년부터 | 2013년 4월 30일 펴냄

「괴짜 탐정의 사건 노트」,
드디어 시즌 2의 막이 오른다!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날아갔다.
자, 그럼…… 모험과 수수께끼로 가득한 신세계로 Let's GO!

입소문만으로 국내 15만 어린이들을 웃기고 울린 베스트셀러 「괴짜 탐정의 사건 노트」 시리즈 후속으로 「괴짜 탐정의 두 번째 사건 노트1. 괴짜 탐정 V.S. 환영사」가 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지난해 14권으로 시리즈가 완결된 후에도 독자들과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 온 괴짜 탐정, 유메미즈 기요시로가 「괴짜 탐정의 두 번째 사건 노트」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괴짜 탐정은 여전히 경제관념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이 없고, 먹을 것 앞에서는 동네 길고양이와도 한 판 대결을 벌일 정도로 식탐이 많다. 하지만 사건 앞에서는 번뜩이는 재치와 예리한 추리력으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한다. 최강의 캐릭터 괴짜 탐정이 이전 시리즈보다 훨씬 더 뽀뽀하고 게을러져서 돌아왔다. 그리고 한층 더 촌촌하게 잘 짜인 미스터리가 두 번째 시리즈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학교에서는 얌전하고 소심한 요조숙녀인 척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왈패로 변신하여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호기심 소녀 이오와 이오의 정체를 알고 있는 애어른인 미오. 그리고 두 사람과 한 집에서 살게 된 베일에 싸인 미소녀 루이. 지난 첫 번째 시리즈에서 대활약을 벌인 세쌍둥이 자매에 이어 이번 시리즈에 활약하게 된 이 세 명의 독특하고 발랄한 소녀들은 미스터리 사건들을 보다 짜릿하고 코믹하게 풀어 나간다.

화자이자 미래의 탐정을 꿈꾸는 이오는 아이들을 붙잡아 박제한다고 소문난 '환영사'를 쫓던 중에 종 이 연극 아저씨, '유메미즈 기요시로'와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 아저씨, 까만 양복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아이들에게 속여서 불량식품을 먹게 하기도 하고, 귀신이나 살 법한 허름한 양옥집에 사는 것까지 겹 모습만 봐서는 이오가 찾아다니는 환영사임에 분명한데 환영사치고는 허술한 점이 너무 많다. 가령 자신의 나이를 말하지 못한다든가,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요일을 알지 못한다든가, 심지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기능조차 헛갈린다. 이오와 미오 자매는 이 허술한 환영사의 뒤를 캐다가 그와 친해지게 되고, 그의 직업이 이오가 그토록 꿈꾸던 '명탐정'임을 알고 나서는 그를 교수님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요란하게 첫인사를 마친 이 세 사람에게 50년 전의 도시를 그대로 재현하여 화제가 된 '레트로시티'의 창립자 효도 히데다카 씨가 찾아온다. 그리고 레트로시티에 진짜 환영사가 나타났다는 소식과 환영사가 'Q왕국 보물전'에 전시될 '블루문'을 훔치겠다는 예고장을 보여 주면서 교수님에게 환영사를 잡아달라는 의뢰를 한다. 첫 사건 의뢰에 흥분한 이오, 미오와 달리 사건 현장인 레트로시티에 도착한 교수님은 사건 해결을 경찰에게 맡기고 한가하게 레트로시티 식도락을 나선다. 하는 수 없이 이오, 미오 자매는 스스로 환영사 잡기에 나서고, 그러던 중 현존하는 최고 인기 아역 배우 루이를 만나 친구가 된다. 이윽고 환영사가 나타나고 '블루문'과 함께 '루이'를 납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 두 사건에는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관여되어 있다.

작가는 피자 탐정 유메미즈를 통해 미스터리 사건과 톡톡 튀는 유쾌한 이야기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개성 강한 인물들을 생동감 넘치게 그려낸 일러스트는 '우리들만의 베스트셀러'라는 취지에 멋지게 부합된다.

● '지금의 내가 제일 좋다!'

장래 희망이 명탐정인 이오는 엄격한 할아버지 밑에서 요조숙녀인 척하면서 학교생활을 해 나간다. 심지어 급식 시간에 밥을 더 먹고 싶어도 새침한 여자아이 연기를 하느라 앞에 나서 말을 못할 정도다. 한편 루이는 레트로시티 안에서는 50년 전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레트로시티 밖에서는 아역 배우로 살아가느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잊고 산다.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이 두 아이의 공통점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척 연기를 하고 산다는 거다. 작가는 이 두 아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지만 울퉁이 가지고 있다면 어느 쪽이든 진정한 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점을 전달한다.

● 뒤이어 출간될 책

2. 피자 탐정 V.S. 학교의 일곱 가지 비밀

'황금의 나라로 이어지는 우물', '도서관에 숨겨진 저주받은 고서(古書)' 등 어느 학교에서나 있을 법한 학교에 얽힌 일곱 가지 비밀.

하지만 무사시고우호쿠 초등학교의 일곱 가지 비밀에는 마지막 일곱 번째 비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 혹시 일곱 번째 비밀이 밝혀지면 학교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괴짜 탐정 유메미즈와 이오, 루이는 한밤중에 학교를 찾아 일곱 번째 비밀 찾기에 도전하지만, 그 비밀 뒤에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 작가 소개

하야미네 가오루

1964년 일본 미에현 이세시에서 태어났다. 미에 대학 교육학부를 졸업한 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반 학생들에게 읽힐 만한 책을 찾던 도중 본인이 스스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작가의 주요 장르는 영 어덜트(YA) 미스터리로, 제30회 고단샤 아동문학상 신인상에 『괴도 피에로』가 입선되면서 소설가로 등단했다. 이후 본명을 숨긴 채 필명인 하야미네 가오루로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각 작품마다 세계관과 등장인물을 공유하면서 각 작품에 다른 작품의 상황을 패러디하기도 한다. 대표작인 「유메미즈 탐정 시리즈」는 1999년 NHK 교육 텔레비전에서 「쌍둥이 탐정」이라는 타이틀로 드라마로 제작되었고, 이외에 「괴도 킨 怪盜クイン」 시리즈, 『도시의 톰&소여 都のトム&ソ-ヤ』 시리즈, 『바이, 바이 스쿨 바이바이스쿨』, 『나의 미래는 여름ぼくと未屋の夏』 등이 있다.

정진희

홍익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그린 책으로 「괴짜 탐정의 사건 노트」 시리즈를 비롯하여 『나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스티브 잡스 아저씨의 세상을 바꾼 도전』, 『잔소리 없는 날』, 『난 이제 혼자야 아니야』, 『어린이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권남희

일본문학 번역가이자 작가이다. 지은 책으로는 『길치모녀 도쿄해매記』, 『번역에 살고 죽고』, 『동경신 혼일기』, 『번역은 내 운명』(공저) 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괴도 20가면」 시리즈, 『캔 커피』, 『언젠가 파 라솔 아래에서』, 『무라카미 라디오』, 『빵가게 재습격』, 『밤의 피크닉』, 『어제의 세계』, 『러브레터』, 『퍼레이드』, 『마호로 역 다다 심부름집』, 『미나의 행진』 등이 있다.

편집장: 김은하(02-515-2000 내선 318번)

팀장: 박지은(02-515-2000 내선 317, allball7@bir.co.kr)

담당 편집: 한귀숙(02-515-2000 내선 321, kira@bir.co.kr)